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 은석교회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천국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도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복음의  
세계 속에 하나로 녹아들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머물기를  
힘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신윤식

바람이 흔들면  
그냥 흔들리고  
장맛비가 적시면  
그냥 젖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이 모두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낙담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함께 동행 하는 분이 있음을 아는 것이  
위로이며 지혜인 걸

그분이 있어 내가 있고  
그 분이 살아 계시기에 내가 살아있어  
또 오늘을 살아가니  
오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 분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이끌림 받는 대로  
길 따라 흐르는 산속 물길처럼  
환한 빛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7.3

발행호수 제19권 27호

예 수님과 서기관이 나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구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었어야 했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잘 소통되어야 할 그들이 소통은커녕 단단한 벽으로 가로막힌 관계로 전락이 되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며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이 알고 있는 바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기관이라는 위치와 경건의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들의 자존심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앎을 신봉했고, 그 앎은 결국 참된 진리에 대한 거부와 배척과 대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해와 해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석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질로 해서 어떤 이해와 해석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깊이 이끌어 가는가에 초점을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오전설교  
마 23:23-24

더  
중한 것

는 자신의 앎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앎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됨은 자신들의 앎을 진리 자체로 여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앎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틀린 것이 없다는 자기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앎과 다른 말을 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상한 말을 증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타도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절대적인 그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맙니다. 율법에 대한 실천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앎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성경조차 무시해 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매일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라건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동일한 잘못됨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앎과 고정관념에 대해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일조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근간으로 십일조를 강조하고 있고, 십일조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과 척도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십일조에 대한 얘기는 십일조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십일조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십일조 생활에 대해 언

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참된 신앙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의 소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또 다시 외식하는 자로 일컬으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십일조는 열심히 드렸지만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는 말씀에 관심을 둡니다. 즉 이 말씀을 십일조도 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일조에 대해서는 실천 할 것을 가르쳤다고 하면서 구약의 십일조가 신약의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일조가 신약의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할 신앙의 한 부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했던 사도들도 십일조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십일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라는 말씀이 십일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아직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성전에서의 제사 역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구약 방식의 신앙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에서 십일조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일조가 엉망이니까 하지 말라’ 고 하셨다면 구약 방식의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율법을 깨뜨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참된 십일조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그들의 문제는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정신이 빠져 있는 실천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십일조를 계산하여 실천한 사람들이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십일조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십일조가 아니었음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일조를 돈으로 이해합니다. 소득의 십분의 일을 계산하여 바치는 것을 십일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일조가 돈이 되면 십일조 외에 나머지 십의 구는 결국 자신의 소유로 여기게 됩니다. 십일조를 바쳤으니 십의 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일조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 12:5-7절이나 14:22-23절에 보면 십일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 14:27-29절에 보면 십일조와 함께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십일조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토지소산의 십일조로 온 가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도 함께 십일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로 지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십일조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십일조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근본 정신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일조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던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임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함께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화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그들의 심령에 계속 새겨두고 살아있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일조에 대한 실천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일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였고, 십일조를 철저히 잘 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높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었고 율법의 더 중한 정의와 공화와 믿음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살이는 철저히 십일조를 신앙으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대는 정의와 공화와 믿음이 율법의 더 중한 정 신임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 같은 십일조는 철저히 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악대처럼 신앙의 큰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정의와 공화와 믿음은 무시하고 삼켜버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형편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일조와 같은 실천을 신앙으로 강조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복 받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화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로 여김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화를 힘입어 용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과 경쟁과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화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실천을 기준으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악대는 삼키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화와 믿음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천과 행함은 감추게 되고 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

**사** 도는 신자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신자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애 쓸 것입니다.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한 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의도는 율법을 따르고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좋은 신앙은 율법을 지켜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 행위에 붙들리게 되는 것인데 사도는 이것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율법적 행위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인정되고, 실천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나쁜 신자로 전락되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롬 8:15-17

**양자의 영**

(성령22강 6.5일 설교)

이것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종의 열심과 성실함을 보고 그를 칭찬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는 철저히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실함과 열심을 보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자기의 열심과 성실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그로 인해서 칭찬과 상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신자를 자녀라는 위치와 신분에게 하겠지만 신자가 아들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با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종의 자리로 이끄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의 영이지 양자의 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들다움이 율법적 실천으로 말미암아 증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열심히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아들로써 할 바를 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천과 행

위가 기준이 되어 아들 됨이 확인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 12:6-8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 말하는 것처럼 아들이기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징계는 아들에게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을 해도 의무감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의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경쟁과 비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자로서의 행동이나 삶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아들의 신분에게 됨을 믿기 때문에 행함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다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은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라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 아들이라는 신분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아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

들의 신분에 있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는가?' 라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일만 주어지고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살 것으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은 철저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비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며 편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명목만 하나님의 아들일 뿐,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신자를 이러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현실세계에서의 편안함을 복을 증거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하는 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일 뿐이고, 사도는 그것을 종의 영을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상속받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주일오우설교

고전 12:4-11

## 성령과 은사

(성령23강 6.12일 설교)

사람은 자신이 높이고 잘난 자 되는 것에서 세상 살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비해 자신을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됨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선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악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는 많은 신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이 더욱 돈보일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원하는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은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신앙인으로 자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결국 은사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지 서로 경쟁하고 차별하게 되고 결국 분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고 이로 인해 사도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의미보다는 은사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은사를 더 낮고 못한 은사로 구별하면서 더 나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은 폐단입니다.

먼저 은사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는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사도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이 됩니

다. 하지만 성령은 분명 한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로 나타나셨든 그것은 모든 이가 성령의 간섭과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구별하면서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은사는 형제에게 봉사하게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과 우월감으로 나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반대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과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남들과 같은 은사가 없는 것을 마치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은사를 자기 자랑과 우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문제이며 잘못됨입니다.

만약 은사를 형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은사가 주어진 이유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은사와 직분 사역을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하다는 것일 뿐 높고 낮음이라는 격차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같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직분 역시 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의 높고 낮음이 있고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주의 일에 격차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즉 성령과 주,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를 차별 있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과 주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 역시 차별이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동일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성경의 선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8-10절을 보면 사도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은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지금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신자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 은사는 은사 받은 그를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남들에게는 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자기 신앙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병 고침이라는 것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으로 오신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방언 역시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통해서 주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믿는다면 그는 분명 주를 바라보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이며 따라서 은사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고난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가 없는 신자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궁

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사도가 말한 은사의 항목을 자신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결국 '나는 은사 받은 것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없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옛 사람으로서의 욕망일 뿐입니다.

롬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은사로 말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은사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김과 가르침, 구제, 긍휼 또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사는 신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사는 어떤 항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나와지고 섬김이 나와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고 주를 믿으며 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에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신자는 모두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로 삽니다. 이 은사로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서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그로 인해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은 약탈되고 부녀는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여호와와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몰락을 당한다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위를 믿는 이스라엘로서 희망의 날이 아니라 절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와 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것 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처럼 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을 참된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큰소리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자신들을 위한 종교생활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와 날에 비극적인 일이 있을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만약 이 일들이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역사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장차 겪어야 할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와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되어질 일이라면 우리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본문의 내용에 대해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것처럼 비극적인 일을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참된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는 비극적인 일을 겪지만

수요일설교

속 14:1-21

**여호와와 날**

(16강 6.1일 설교)

남은 백성이 있어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남은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참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면, 참된 예루살렘은 기존의 예루살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진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은 남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지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힘이 있어서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하여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3절에서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는 말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나라를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심으로써 남은 백성을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심으로써 끊어짐을 면하게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13:7-9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9절)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남은 자가 부르는 부름에만 응답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끊어짐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남은 자의 부름만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이 끊어짐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세력과 싸우심으로 인한 승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모두 하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자기 육신을 더 채우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남은 자와 남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7,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낮도 밤도 아닌 빛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낮도 밤도 아닌 빛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빛과는 다른 차원의 빛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해와 서해는 바다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바다는 곧 죽음의 세상을 비유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없는 빛이 세상에 있어서 어둠을 비추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하고, 또한 죽음과 저주의 세상에 생수가 흘러들어서 생명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11절에서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입니다.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죽음과 저주의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는 날이고 우리를 평안히 서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저주에서 건짐 받는 자가 있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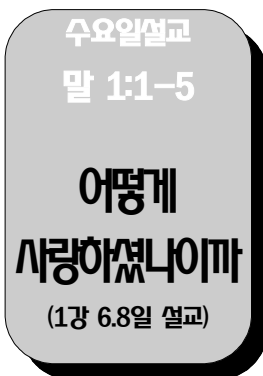
이들 남은 자는 자신이 어떻게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

능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존재하게 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합니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손에 쥐어진 것으로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에서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높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참된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발생합니다(16절).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 것을 풍성함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없는 자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속한 남은 자를 세우심으로 저주에 속한 자가 누구이고 생명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날은 나중에 임할 심판의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여기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본다면 쉽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은 극빈자에 비하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나



형편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고 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로 반응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면서 중단된 제사도 다시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과 복을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고 반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으로 욥이 등장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렸고 자신은 질병으로 건드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신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것을 누리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삶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근심과 걱정거리 밖에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팍팍한 인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깊이가 다가오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는 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반응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 후반절과 3절을 보면 “에서는 아돔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아돔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사랑이고 미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간됨을 보시고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로 야곱을 택하시고 미워할 자로 에서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서가 미움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움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당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자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에서는 미움을 받을 자로 남겨진 것이고, 야곱은 미움을 받을 자에서 사랑을 받을 자로 택함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과 환경에서만 사랑을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했기에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선택을 근거로 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자 됨을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자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은 환경과 상관없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쁜면 나쁜 대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잊고 환경이 나쁘면 불평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을 주셨는가?’ 는 중

요한 문제가 아니며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를 의미합니다. 이 에서를 가리켜서 여호와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영원한 진노 안에 있다는 증거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받지 못한 자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번성은 번성이 아닙니다. 지금 쌓고 있는 것이 힘으로 여겨지겠지만 결국 허물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것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간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 11장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증거하고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에서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알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랑을 받고자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장  
교 독 : 8(시14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397장  
성 경 : 마 23:23-24  
말 씀 : 더 중한 것(14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4장  
기 도 : 박위선 권사  
찬 송 : 445장  
성 경 : 엡 2:19-20  
말 씀 : 교회는(교회 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말라기 강해(4강)

##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있습니다.
2. 은석교회 수련회 안내  
일시 : 8월 5-7일  
장소 : 문경 펜션  
\* 참석자는 각 구역의 장로님께 신청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조길옥 집사

## 다시 생각해 보는 예수님 ③

하지만 역사적 예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를 부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사실임이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천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과도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되며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육적인 의미로는 불가능하며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지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관계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며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다.

역사적 예수는 단지 과거의 인물로 제한될 뿐이다. 이러한 과거의 예수로는 우리의 구원은 물론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현재의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와도, 생명과도 상관없는 존재일 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인 인물로 머물게 될 뿐이고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든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이천년 후에 탄생한 나와의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는 역사적으로는 오직 한번 세상에 임하셨고 한 지역에서 한 시대를 살다가 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들의 심령에 오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날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영혼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천 년 전에 오신 예수는 단지 우리의 관념으로만 머물게 되고 믿음 역시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